

# ‘남원 춘향제’ 오색 축제로 온다

5월 10~16일 개최...시대 캐릭터 코스튬·퍼레이드·의상체험 등 시민 참여 콘텐츠·관광상품 개발·콘서트 등 풍성...할인 이벤트도

축제의 역사 한 세기를 채워가고 있는 남원시의 올해 ‘제94회 춘향제’가 일정에 오는 5월10일부터 16일까지로 확정됐다.

남원시는 오는 5월10일부터 7일간 광한루원 일대에서 ‘춘향, Color愛 반하다’란 주제로 ‘제94회 춘향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1931년부터 시작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로 남원춘향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전통테마의 국내 대표축제다.

올해 춘향제는 공연예술과 시민참여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도 높은 축제를 지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글로벌 축제로서 도약하는 중이다.

시는 젊은세대와 기성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와 관광상품들을 개발함으로써 올해 남원춘향제를 준비할 계획이다.

올해 춘향제의 특징은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장이다.

춘향제에 맞는 시대 캐릭터 코스튬, 퍼레이드, 의상체험 등을 통해 모두가 즐기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리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양성과 풍성함을 더한다.

여기에 처음 선보이는 ‘뮤지컬 춘향’과 예술인들의 합동공연, 콘서트, 불꽃축하쇼 등으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계획이다.

또 남원춘향제 기간에 맞춰 할인행사를 진행하

는 ‘춘향페스타’로 쇼핑의 경험을 더욱 즐겁게 만들 예정이다.

지역 상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체험쿠폰과 지역화폐 등으로 지역 상권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안팎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 중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는 올해 춘향제 방문객을 100만명까지 유치한다는 목표를 정했고 이후 100회가 될 때까지 춘향제가 명실공히 글로벌축제로 인정받도록 연구와 도전, 보안을 거듭해 나갈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제94회 춘향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고 매년 기대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과 실질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축제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 학대 피해 아동·가족 심리치료

시-아동보호전문기관 협약...아동 정서·사회성 발달 촉진 협력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근 마음의숲아동 가족상담센터와 지역 내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의 심리치료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역(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내 학대 피해 아동의 언어 발달 지연 예방과 아동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촉진을 위한 전문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유미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팀 팀장은 “이번 협약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대피해아동과 가족구성원에게 전문적인 개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소울마음의숲아동가족상담센터장은 “학대로 인해 잘못된 성장 발달을 경험한 아동들의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고 아동들을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따라 올해 1월



에 개소했다. 동법 제46조에 근거해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역 4개 시군 관내의 학대 받은 아동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 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산후조리원·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남원시가 시민 건강증진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기반시설 확충에 나선다.

남원시에 따르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고죽동 부지에 연면적 19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현재 91억원(국·도비 76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의 예산이 확보되는 등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지난해 설계공모를 거쳐 기본 디자인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산모실(13개)과 신생아실, 모유 수유실, 마사지사실, 맘카페, 선글라스, 프로그램실 등이 갖춰진다. 산모의 치유를 돕는 전국 최고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을 넘어 전북 동부권 지역민의 출산과 관련한 경제·심리적 부담 감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과 ‘보건기관(보건소) 환경개선사업’ 등 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주민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요구에 맞는 건강관리, 주민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조감도.

하는 전담기관으로 설명된다. 총 사업비 53억원(국·도비 14억원 확보)을 투입, 동충동에 연면적 825㎡ 규모로 설계 중이다. 2025년 5월 개소가 목표다.

센터에는 체력단련실, 통합관리실, 어린이체험관 등이 들어선다. 원스톱 맞춤형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교육, 주민참여공간 지원 등 주민을 위

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시 보건소는 상시 감염병 대응 체계와 일상속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총 사업비 38억원(국·도비 13억원 확보)을 투입, 전면 환경개선(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 임플란트·틀니 지원 만족도 99%

65세 이상 군민 269명 혜택...올해 신청자 접수

고창군의 ‘임플란트·틀니 지원사업’에 군민들의 만족사업으로 자리잡으며 순항하고 있다.

고창군보건소에 따르면 ‘임플란트·틀니 지원사업’에 대한 응답자 120명 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9.2%가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응답자 전원이 “경제적인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96.6%의 응답자가 “턱bone에 씹는 불편이 줄었다”고 답했다.

고창군이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로 현재까지 269명의 군민이 혜택을 봤다. 임플란트는 193명(71.7%), 부분틀니는 81명(30.1%), 완전틀니는 42명(15.6%)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 2022년 지역건강조사에서 관내 65세 이상 노인층의 저작(咀嚼)불편 호소율은 48.1%였고 보건소는 사업을 통해 해당 지표가 월등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군은 ‘저소득층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지원내용으로 ▲완전 및 부분틀니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하악 구분없이 1인 최대 2대 지원(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분틀니와 중증지원 가능) ▲지대치 보철 부분틀니 1억당 최대 3개, 2억 최대 6개까지 보철비용 지원(비급여)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 사후관리비 지원 등이다.

희망자는 보건소 치과실이나 진료교진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도 접수처에 접수하면 알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플란트·틀니 시술을 고민해 온 저소득 노인들이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정읍 배달앱 가입 후 첫 주문 5000원 할인

‘위메프오’ 설 명절 이벤트...다음달 2~4일 매일 선착순 200명

정읍형 공공배달앱 ‘위메프오’가 설명절 고객감사 할인행사를 연다.

정읍시는 2월2일부터 4일까지 회원가입 후 첫 주문한 고객에게 3일간 매일 200명씩 선착순

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읍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주어지는 10% 할인혜택과 1일 1회 배달료 최대 2000원 할인쿠폰 행사도 그대로 진행된다.

할인행사에 참여하려면 스마트폰(아이폰-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플레이스토어)에서 ‘위메프오’를 검색해 내려받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가맹 신청은 인터넷으로 ‘위메프오 파트너스’를 검색한 후 입점신청을 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감사 이벤트를 통해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 농민 숙원 ‘농업인회관’ 완공

고창군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인 ‘농업인회관’이 준공됐다.

고창군 농업인회관은 심덕섭 군수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총 31억3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상 3층, 연면적 978㎡ 규모로 건립됐다.

1층 창업·가공 교육관에는 지역 우수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가공과 시제품 개발, 창업 및 가공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제조 장비를 구비했다.

2층은 농업인단체 사무실과 세미나실, 휴게실

로 활용될 예정이다. 3층은 184석을 갖춘 대화의 실로 첨단 방송통신 장비를 갖춘 극장식 공간으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교육과 행사가 가능하다.

그간 고창군 농업인단체는 소통·교류 전용 공간이 없어, 지난 25년간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용해 왔다.

고창군은 농업인회관을 통해 더 나은 협업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